

2026년 6월 셋째 주, 구역 공과

## 23 물, 물, 물 좀 주세요.

-요한복음 4장 7~15절(신약 147)-

### 예배순서

• 찬송: 435/ • 기도: 구역원 중/ • 말씀 속으로/ • 헌금찬송: 436/ • 주기도문

### 환영/ 마음 열기

자신의 기호를 파악해 보자. 식혜 vs 수정과/ 콜라 vs 사이다/ 커피 vs 미숫가루

### 말씀 속으로

귀한 것일수록 값은 비싸진다. 과거 유럽의 후추는 ‘검은 황금’, 고대의 소금은 ‘하얀 황금’이라 불렸다. 물이 극도로 부족했던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샘물이 솟아나는 우물을 가진 사람이 최고의 부자였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이 판 우물을 주변 토박이들이 끊임없이 빼앗으려 했던 이유도 우물이 곧 생명이자 거대한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본문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야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 예수님이 등장한다.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에게 혐오와 무시의 대상이었다. 게다가 이 여인은 남편을 다섯이나 바꾸고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는 밑바닥 인생이었다. 여인은 사람들의 눈총을 피해 가장 뜨거운 정오(제 육시)에 물을 길으러 나왔고, 예수님은 사회적 편견의 벽을 깨고 그녀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신다. 이에 여인은 날이 선 목소리로 반문한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요 4:9) 여인은 삶의 무게에 짓눌려 눈앞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다. 인간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뇌의 사고가 좁아진다. 영적인 진리를 인식하지 못한다. 여인의 머릿속은 온통 지긋지긋한 현실뿐이었다. 대출이자, 자녀 성적, 질병, 갈등으로 가득 차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지독하게 닮아있다.

• 주님의 \_\_\_\_\_에 반응하자. “내게 그 물을 주소서.”

예수님은 여인의 차가운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의 시선을 영적인 물로 이끄신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

왔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요 4:10) 여인은 이 말에 끌렸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여겨 반문한다.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요 4:11~12) 여인이 말한 우물은 인공적으로 빗물을 가둔 웅덩이인 ‘프레아르(φρέαρ)’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저절로 솟구치는 샘물인 ‘폐게(πηγή)’이다. 우리는 평생 아파트, 연봉, 성공이라는 인공 우물을 파며 살지만 마시는 순간 또 목마르다. 돈을 채우면 건강이 고장 나고, 건강을 챙기면 자녀가 속을 썩이는 액체 같은 세상이다. 이에 예수님은 위대한 초청을 하신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4:13~14) 이 반복된 초청에 여인은 마침내 반응한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요 4:15) 주님이 우리도 초청하신다. 주님의 초청에 “내게 그 물을 주소서”라고 외치는 영적 반응이 있어야 한다.

• 주님은 이 투박하고 오해 섞인 \_\_\_\_\_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신다.

사실 여인의 반응은 영성 깊은 신앙고백이 아니다. 마법 같은 물로 뜨거운 피약별 고생과 사람들의 눈총을 면하고 싶다는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생각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다. 주님은 이 투박하고 오해 가득한 작은 반응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의 시작점으로 삼으신다. 처음 교회에 발을 들였을 때를 돌이켜보자. 완벽한 신학적 고백으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다. 대부분 가난, 가정의 위기, 질병 등 각자의 목마름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 내 문제 해결을 바라는 기복적인 마음이 가득했다. 주님은 우리의 서툰 “물 좀 주세요”라는 비명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깊은 곳의 생수를 터뜨리는 ‘은혜의 마중물’로 삼으신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였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울부짖었고, 혈루증 여인은 병이 낫기만을 바랐다. 주님은 이 타는 듯한 갈증과 거친 비명을 마중물 삼아, 그들을 소원 성취를 넘어 영원한 구원과 깊은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셨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쭈뼛거리는 여인에게 먼저 “물을 좀 달라”(요 4:7)고 하셨다. 이는 여인의 갈증과 이기적인 기도 제목을 마중물 삼아 영혼의 거대한 은혜의 수맥을 터뜨려 주시겠다는 사랑의 요청이다. 세상 물질과 성공에는 민감하면서 주님의 초청에는 무감각하지 않았는지 돌이켜보자.

## 나눔과 기도

- 사마리아 여인이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으며 현실에 갇혀 있었던 것처럼, 지금 나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어 주님의 음성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나만의 현실적인 염려와 목마름’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나누어 보자.
-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과 교회, 온 세계 열방(선교사님, 전쟁)을 위해 기도하자.